

AUTHOR 정성구 (Sung Kuh Chung)

TITLE 돌트총회와 칼빈주의 운동
(The Synod of Dort and Calvinism
Movement)

IN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vol.5 no.1 (Spring, 1988):43-64

금까지의 논의에서도 밝혀졌지만 18:1-19:1에 나타난 제자들의 공동체 생활의 맥락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히 나타난다.⁶⁶⁾ 공동체 생활에서 누가 크냐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8:4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내의 차등상급과 겸손을 연결시킨 것은 확실하다.

□ 요 약

5:12, 5:19, 11:11, 18:4을 중심한 차등상급 논의에서 밝혀진 것은 천국 내의 차등개념이 신인(神人) 상호성 구조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5:12에서는 피박해와 *πολὺς μισθός*의 상호성이, 5:19에서는 교육+실천과 *μέγας κληθήσεται*의 상호성이, 11:11-12에서는 *βιάζειν*과 위대성의 상호성이에, 18:4에서는 겸손과 *μείζων*의 상호성이 천국 내의 차등상급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상급교훈에서 차등개념을 부인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계속>

66) *ταπεινωσις*가 대신 관계를 포함하는 것은 사실이나 문맥상 이것은 주로 동료 제자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반대입장은 Trilling, *Israel*, p. 108에서 보라).

돌트總會와 칼빈主義 運動¹⁾

—實踐神學的 問題를 中心으로—

鄭 聖 久
<실천신학>

| | |
|-------|----------------------|
| <목 차> | |
| 서 | 론 |
| 1. | 돌트총회의 의의와 한국장로교회의 과제 |
| 2. | 돌트총회와 돌트규정 |
| 3. | 돌트총회와 실패문제 |
| 4. | 돌트총회와 복회문제 |
| 5. | 돌트규정에 포함될 선교문제 |
| 결 | 론 |

序 論

한국장로교회는 선교백년(宣敎百年)을 보내고, 무엇인가 자기정리를 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것은 펴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장로교회는 삼분오열(三分五烈)의 진통으로 말미암아 한번도 자기정리를 진지하게 해본 일이 없다고 하겠다. 가령 칼빈주의신학과 신앙을 포방한 장로교회가 한세기 동안 개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만 주력(主力)하다보니 정작 장로교회로서의 특성과 뿌리를 잊어버리고 비복음적(非福音的)이고 잡다한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이렇다할만한 비판이나 대안이 없었던 것도 솔직히 시인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칼빈주의나 개혁주의(改革主義)나 하는 말도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그 본래적인 신학이나 신앙노선을 위하여 그 뿌리를 찾아보려고 애쓰지 못하였

1) 이 논문의 골격은 1981년 5월 14일 인천 재이교회에서 개최되었던 제18회 전국 목사 장로기도회 때 행하여진 필자의 강연을 기초한 것이다.

다. 가령 한국장로교회가 돌트총회(The Synod of Dort)와 돌트규정(The Canons of Dort)에 대하여 한 편의 논문도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할 정도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돌트총회와 돌트규정 등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실천신학적 입장(實踐神學的立場)에서 고찰해 보려고 하는 바이다. 실로 돌트총회는 요한 칼빈(John Calvin)의 신학을 확인하고 알미니안(Arminian)주의자들의 도전을 꺾고 정통 기독교를 지킨 대총회(大總會)였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The Westminster Confession)의 모체(母體)가 된 돌트규정에 비친 내용과 총회의 활동의 내용을 오늘에 다시 되살려 칼빈주의 개혁과 장로교회의 본래의 정신을 되찾고, 오늘 우리 교회의 방향을 삼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로, 칼빈주의를 따르는 장로교회로서 오늘의 우리의 문제성이 무엇인가를 묻고,

둘째는 돌트총회를 전후한 사건과 총회장 요한네스 보겔만(Johannes Bogerman)의 활동상황을 살피고,

세째는 돌트총회가 열리기까지 분쟁의 중요한 문제였던 설교문제,

네째는 돌트규정에 나타난 목회원리(牧會原理)문제,

다섯째는 돌트규정에 포함된 선교사상(宣敎思想)의 문제를 취급하려고 한다.

이미 앞서 말한대로 본 논문의 방향은 돌트규정에 대한 교리적 접근보다 주로 실천신학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1. 돌트총회와 한국장로교회의 과제

우리 교회와 교역자들은 우리가 칼빈주의적 정통교회임을 자부(自負)하면서도 정작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노선의, 역사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던 돌트총회와 돌트규정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려고도 하지 않은채 오늘에 이르렀다. 선교백년이 넘도록 한번도 글이나 말로써도 다루어본 일조차 없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²⁾ 다만 칼빈주의 5개조(The five points Calvinism)라는 돌트규정의 다섯 가

2) 특히 鍾浩編「韓國神學論文總索引」1916—1977(總神大學出版部, 1979)에서도 단 하나의 논문도 발견할 수 없다.

지 제목만 소개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향은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뿌리와 맥(脈)에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칼빈주의나 돌트규정의 내용을 전문적인 신학자들의 연구주제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이 오늘의 교회의 성장과 목회와 설교, 전도 등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신학교에서 배운 개혁주의(改革主義)는 하나의 교리적인 자기입장으로 삼았을 뿐, 그것이 목회현장(牧會現場)에서는 전혀 무관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교회의 과제 중에 하나는 신학과 목회현장과의를 어떻게 거리를 좁히고 연결시키느냐 하는 문제이다. 참된 칼빈주의교회의 특징으로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宣布), 둘째는 권징(勸懲)이 올바르게 실시되고, 세째는 성례(聖禮)가 바로 집행될 때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개혁주의가 하나의 교리적인 것에 그치고 실제로 목회의 현장과는 격리가 될 때는 실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케 된다.

예컨대 설교의 현장이 개혁주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오직 하나님 말씀만”(Scriptura Sola)과 “하나님의 말씀 전부”(Scriptura Tota)를 바로 증거해야 그것이 개혁주의적인 설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성장(成長) 또는 교회의 평화(平和)라는 구실로 가감(加減)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실천신학에 있어서 개혁주의 사상의 정립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목회방법론에 있어서 심리학적이고 행동과학(行動科學) 또는 분석과학(分析科學)의 방법론까지 아무 비판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목회를 복음선포(Proclamation)로 보지 않고 치료(Healing)로 보려는 태도도 오늘날 교회의 한

3) 실제로 이러한 제목도 朴允善, 칼빈주의 五大敎理, 把守軍 No. 19(1952), 32—35와 申福潤, 칼빈주의 五大綱領, 現大思潮, 1978. 7—12 정도가 있을 뿐이다.

4) R. B. Kuiper, *Scriptural Preaching, In the Infallible Word, A Symposium by the members of the faculty of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Eerd. Co. (Michigan, 1953), p. 209f.* Sidney Greidanus, *Sola Scriptura, Problems and Principles in Preaching Historical Texts* (Toronto, 1970), p. 146f.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⁵⁾ 또한 이러한 경향을 띤 책들이 소개됨으로써 한국교회는 그 영향을 입은바 크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다할만한 대안(代案)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

돌트총회와 돌트규정은 교리적인 논쟁 이전에 설교와 목회에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의 정황에서 돌트의 정신을 되살려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피터 더용(Peter Y. de Jong)의 말과 같이 “오늘의 교회와 세상의 위기의 양상은 돌트시대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할찌라도 실제 근본적인 문제점은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⁶⁾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의 과제 중의 하나는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비성경적이고 비개혁주의적인 것을 배격하고 성경적인 참된 교회로 되돌려야 하기에 돌트총회의 의의와 돌트규정의 내용을 다시 음미(吟味)하여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2. 돌트총회와 돌트규정

교회는 지금까지 여러 신조(信條)와 신경(信經)을 제정하여 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빈주의적 신앙규범을 제시하여 준 것들은 다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즉 칼빈(J. Calvin)의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1559), 「하이델버그 요리문답」(The Heiderburg Catechism, 1563), 「벨직교백서」(Belgic Confession, 1561), 「스위스의 제 2 헬베틱교백서」(The Secone Helvetic Confession, 1566), 「돌트 규정」(The Cannon of Dort, 1619),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Westminster Confession, 1646)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⁷⁾ 즉 칼빈이 「기독교

5) 예컨대 S. Hiltner를 위시해서 독일의 Faber, Stollberg, Scharfenber 등이 실험적이며, 분석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6) Peter Y. de Jong, ed. *Crisis in the Reformed Churches, Essays in Commemoration of the Great Synod of Dort, 1618—1619* (Grand Rapids, 1968). Introduction V. 이 책은 Calvin College와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등의 교수들이 중심되어 심포지움의 형식으로 된 책이며 돌트총회 및 돌트규정의 내용을 오늘의 개혁교회에 되살리자 노력한 글들이다.

7) 물론 루터교회와 구별하여 개혁교회의 발전을 따라서 작성된 신조들도 꽤 많지만 위에 열거한 다섯 가지는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

교강요」를 낸지 100년 동안의 일련의 사상체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본다.⁸⁾

일찌기 존 머리(John Murray) 교수가 지적했듯이 칼빈과 돌트규정(規程)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은 개혁파신학 형성의 나침반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요점으로 하고 있다.⁹⁾ 그 가운데서도 돌트총회는 당시 알미니우스(Jacob Arminius, 1560—1609)의 후계자들로 구성된 이른바 “항의자들”(Remonstrantiae)의 강한 세력에 부딪쳐 장장 6개월간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서 비성경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개혁주의사상을 굳힘으로써, 총회의 의지로서 칼빈과 어거스틴과 바울사상으로 되돌아가는 놀라운 결정을 내림으로 칼빈주의 교회건설의 뿌리를 내리도록 한 대총회(大總會)였다.

(A) 돌트총회의 경위

칼빈이 죽고난 후에 개혁파 신학자들 사이에는 이른바 절대예정론(Supralapsarianism)¹⁰⁾과 예지예정론(Infralapsarianism)¹¹⁾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자 이 두 용어는 예정의 교리에 대한 자자의 의견을 나타내는 논리적 결론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그후 칼빈의 예정론을 들

다. 특히 Philip Schaff, *Creeeds of Christendom*, I, pp. 727—829를 참고할 것.

8) 「기독교강요」의 마지막판(1559)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하다는 말이다.

9) De Jong, *op. cit.*, p. 159.

10) 이것을 원예정론(原豫定論)이라고도 하는데 Charles Hodge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은총과 義를 나타내기 위하여 창조될 사람(The creatable man) 중에서 은총의 그릇이 될 사람들과 진노의 그릇이 될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였다. 순서적으로 볼 때 구원여로의 예정과 정죄로서의 예정이 창조와 타락허용의 목적보다 앞서는 것을 의미한다.” *Systematic Theology*, Vol. II, (New York, 1875), p. 316.

11) 이것을 創造後豫定論이라고 하는데 Charles Hodge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즉 자기 자신의 본성의 완전함을 나타내려는 계획에서 먼저 세계의 창조를 결심하셨고 그 다음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셨으며, 세계로 타락한 인류의 집단 속에서 그 수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자비의 그릇으로 택했다는 것이다. 즉 이 말은 창조후 인간의 타락이 있는 후에 비로서 하나님께서 타락된 인류 중에서 그 일부를 구원으로 예정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했다. *Ibid.*, p. 316.

려싸고 칼빈신학도들 사이에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런데 이 문제를 중심한 논쟁에 첫발을 질러놓은 사람은 화란의 신학적 자유주의로 알려진 평신도 신학자 코른헤르트(D. V. Koornheert)였다. 그는 원죄론과 그리스도의 대리속죄를 비성경적이라고 배격했으며,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을 죄를 만드신 자로 여긴다는 논거에서 이 교리를 반대하였다. 이렇게 코른헤르트가 절대예정론에 대한 반대저술을 내는 동시에 그의 추종자들을 규합하여 이른바 화란 신앙고백(和蘭信仰告白, Belgic Confession)¹²⁾의 수정을 요구하게 이르렀다. 이러한 도전에 접한 개혁신교회의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은 당시로서는 논리에 뛰어나고 토론의 명수였고 칼빈주의자로 알려진 알미니우스에게 코른헤르트의 이론에 대한 반박문을 기초하도록 위탁했다. 그런데 반박문을 쓰기 위하여 연구하는 도중에 그는 도리어 절대예정론에 반기를 들게 되었다. 당시 라이덴대학(Leiden Universiteit)¹³⁾의 교수였던(1605) 그는 철저한 칼빈주의자였던 고마루스(Francois Gomarus, 1563—1641)와 정면충돌하고 대논쟁을 벌이게 됐다. 이 논쟁은 점차 확대되어 칼빈주의자들과 예정에 대한 모든 성경적 교리를 없애버리려는 합리주의적인 반칼빈주의자들 사이에 일대논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이른바 교리사적으로 알미니안논쟁(Arminian Controversy)¹⁴⁾이라고 한다.

12) 이 신앙고백은 1561년 기도드브레(Guido de Brès, 1522—67)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불란서어로 기초하고 그후 칼빈의 제자 프란시스 유니우스(1545—1602)가 이를 개정한 후 1562—66년간에 비로소 이를 인쇄한 후에 화란어, 독일어, 라틴어 등으로 번역되었고 1566년 당시의 화란령이었던 안트벨프(Antwerp)의 총회에서 채택되었는데 이는 화란의 칼빈주의 원리를 확인한 것이다. 이 고백은 최종적으로 돌트총회(The Synod of Dort)에서 다시 확인 채택되었다. 그후에 화란 및 미국의 개혁신교회가 하이델베르크 문답과 아울러서 채택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더불어서 전체가 칼빈주의적 교리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3) 프란시스 고마루스는 당시 라이덴 대학의 알미니우스와 쌍벽을 이루는 교수였다. 그는 목회자이자 교수였고 교회의 지도자요 진리의 옹호자였다. Arminius의 작품집으로 영어 편집된 책은 William Nichols, *The Works of James Arminius*, Vol. I—III (London: Thomas Baker, 20, Goswell Road E.C. 1875)이다.

14) De Jong, *op. cit.*, p. 43f. L. H. Wagenaar, *Van Strijd en Overwin-*

이 논쟁은 곧 화란의 개혁신교회에 전체에 파급되어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후에, 다시 논하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논쟁을 뛰어넘어 교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산되었다. 그후 알미니우스가 1609년에 사망하자 그의 후계자인 시몬 에피스코피우스(Simon Episcopius 1583—1643)가 알미니우스파의 대표가 되었고 그들의 입장을 체계화하고 발전시켰다. 그후 알미니우스파는 1610년에 우이텐보게르트(Uytendogaert)¹⁵⁾가 기초하고 46명의 목사들이 서명한 다섯 조항의 항변론(抗辯論, *Articuli Arminiani Sive Remonstrantiae*)을 세상에 공개하여 그들의 입장을 밝히며 칼빈주의자들을 공격하였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항의자들”(Remonstrantiae)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에 반해서 칼빈주의자들은 이른바 “반동항의”(Counter-Remonstrance)를 공포하였다.¹⁶⁾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항변서는 개혁신교회 안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저들은 칼빈주의의 예정론이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몰각한 것이라고 몰아부쳤다. 또 사실 합리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젊은층간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보였다. 이렇게 물의가 일어나자 이 문제의 수습과 해결을 위하여 돌트총회(The Synod of Dort)를 열게 되었다. 이것은 전국총회(De Nationale Synode)¹⁷⁾인 동시에

ning (De Groote Synode van 1618 op '19, en wat aan haar voorafging) (Utrecht, 1909), pp. 32, 56, 120, 83, 99. 에피스코피우스는 보겔만(J. Bogerman)의 장과는 논쟁의 적수였다.

15) Johannes Uytenbogaert(1557—1644)는 화란의 항의파중에 명망있는 지도자였다. 1557년 2월 11일 우트레흐트(Utrecht)에서 로마카톨릭 부모들 사이에 태어났다. 우트레흐트의 성제롬(St. Jerome) 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1세에 이미 변호사가 되었고 후에 제베바에 가서 베자(Theodore Beza) 아래에서 신학을 공부하였고 그 제베바 아카데미에서, 고향 사람인 알미니우스를 알게 되었고 일년 후에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베자의 감화보다 알미니우스의 감화를 받아 그를 추종하는 자가 되었다. De Jong, *op. cit.*, pp. 46—47.

16) 이 “반동항의”는 1611년 라이덴의 목사 Festus Hommius에 의해서 기초되었고 칼빈주의자들이 모두 여기에 관동하였다. 이 반동항의서는 항의자들의 5개조를 비평하고 성경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7조로 구성되었다. De Jong, *op. cit.*, pp. 33f., 209—213. 또한 John T. McNei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New York, 1954), pp. 264—265.

17) B. Glasius, *Geschiedenis Der Nationale Synode*, in 1618 en 1619 gehouden to Dordrecht, in haar Voörgeschiedenis, handelingen en gevol-

국제회의의 성격을 띤 것이다.

회의는 1618년 11월 13일 화요일 돌트레흐트의 목사 티다우스(Balthazar Lydius)와 미델버그(Middelburg) 대회의 더 뿌르스(Jeremias de Pours)의 설교로 개최되었다.¹⁸⁾ 그리고 이 회의는 이듬해 1619년 5월 9일까지 계속되었다. 유럽의 관문인 로텔담에서 남쪽으로 인접한 라인강 하류에 위치한 이 도르트레흐트(Dordrecht)에는 화란의 자노화와 대회의 총대 뿐만 아니라 개척파교회의 여러 나라 지도자들도 함께 참석하였다. 이 돌트레흐트는 84명의 화란개척파교회의 대표들과 18명의 정부대표로 구성된 화란대표단이었으며, 영국, 스코틀랜드, 산제후령(選帝侯領), 헝세, 나사우(Nassau), 동프리스란트(East Friesland), 브레멘 등으로부터 온 외국 대표단들은 28명이었다.¹⁹⁾ 당시 영

gen. Tweede Deel(Leiden, 1816), p. 1. B. Glasius는 그의 책에서 “전국교회회의”(Nationale Kerkvergadering)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다. *Ibid.* 그리고 이와 같은 성격의 총회는 1568년에 Wessel에서, 1571년에는 Emden에서, 1574년과 1678년에는 Dordrecht에서, 1581년에는 Middelburg, 1582년에는 Haarlem에서 1586년에는 Den Haag에서 각각 개최된 바 있다. F. S. Knipscheer, *De invoering en de Waardeering des Gereformeerde belijdenisschriften in Nederland Voor 1618*..... (Leiden, 1907), p. 76.

18) Glasius, *ibid.*, pp. 7-8.

19) 이 회의는 성격상 개혁파 프로테스탄트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회의였다. P. Schaff, *Creeeds*, Vol. I, pp. 512-515. 돌트레흐트에서 신학교수 출신으로는 다음과 같다. Johannes Polyander(라이덴대학교수, 신학박사), Francius Gomarus(호로닝겐대학교수, 신학박사), Anthonius Thysius(하더베이크교수), Anthonius Walaeus(미델버그아카데미교수). 한편 제임스 1세가 파송한 영국대표는 다음과 같다. George Carleton(감독), Josephus Hall(신학박사, 윈체스터대학학장), Johannes Davenantius(신학박사, 케부리지대학교수), Samuel Wardus(신학박사, 케부리지의 시드니대학교수).

그리고 스위스에서 온 네 개척파교회의 대표들은 다음과 같다. Johannes Jacobus Breytiningerus(쥬리히의 목사), Marcus Rutimeyerus(베른교회목사, 신학박사), Sebastianus Beckius(신학박사, 바젤에 신학부학장, 신학교수), Wolfgangus Meyerus(신학박사, 바젤교회 목사), Johannes Conradus Kochius(스카펜하우젠의 목사).

그리고 제비바교회의 대표로는 Johannes Deodatus(제비바교회목사, 신학교수), Theodorus Trochinus(제비바교회목사, 신학교수).

또한 Palatinate Hesse, Bremen 등지에서 온 대표자들 중에도 신학교수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Abrahamus Scultetus(신학박사, 하이델베르크대학교

국의 제임스왕은 자기 나라 대표단에게 양측의 과열된 대립관계를 완화시키라는 훈령을 했다고 한다. 또 독일 대표단도 그와 같은 조정역할을 하려고 했으나 그것은 무력한 것이었다.

회기(會期)는 1619년 5월 9일까지였으며 기간 중 154회의를 거듭하였으며 그 사이에도 소위원회가 계속 열렸다. 결국, 돌트레흐트는 주일을 빼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회의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 돌트레흐트 회의에는 문제의 알미니우스파 대표들 13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그들은 피고취급을 받았고, 의사진행에 참가하지도 못하고 제외되어 버렸다. 결국 돌트레흐트는 철저한 칼빈주의자들의 압도적인 승리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결국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항변론은 정죄되었고 칼빈주의적인 반항변(反抗辯; Contra Remonstrantia)이 신앙규범(Canon)으로 채택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 돌트레흐트에서 벨기신앙교백과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B) 돌트레흐트와 돌트레흐트의 교리적 문제

돌트레흐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칼빈주의적 기본골격인 돌트신경(The Canons of Dort)을 결정한 일이다. 이 돌트신경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된다는 성경적 교리를 힘있게 붙들고 변증한 것이다.²⁰⁾

그러면서도 돌트신경은 하나님의 주권(Divine Sovereignty), 인간의 책임(Human Responsibility)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²¹⁾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트신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만큼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단독사역임을 천명한 것이다. 그래서 돌트신경에 이른바 칼빈주의 5개조 교리로 요약되는 인간의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무조건 선택(Unconditional

수), Paulus Tossanus(신학박사, 제관국 회원), Henricus Altingius(신학박사, 하이델베르크교수), Georgius Cruciger(신학박사, 말복아카데미교수, 학장), Paulus Steinus(브레드린대학, 신학교수), Rudolphus Goclenus(말복아카데미, 철학교수), Henricus Isselburgius(신학박사, 신학교수) 등이다. De Jong, *op. cit.*, pp. 215-219.

20) *Op. cit.* P. Y. De Jong, "The Doctrinal Deliverances of Dort" by F. H. Klooster, p. 52.

21) *Ibid.*

Election), 제한속죄(Limited Atonement),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성도의 궁극적 구원과 보호(Perseverance and Preservation of Saints)이다.

본래 화란개척파교회는 칼빈의 신학과 신앙에 기초한 벨직교백서(Belgic Confession, 1561)²²⁾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Heiderberg Catechism, 1563)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돌트신경은 지금까지 견지해 오고 있던 신앙고백들을 재확인한 결과가 된 것이다. 결국 돌트의 신앙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총의 진리를 성경대로 바로 깨달은 것이다. 돌트규정은 죄인인 인간과 창조주와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구원하신 은총의 교리이다. 사실 이 진리들은 하나의 죽은 문서가 아니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감격적인 진리이다.

돌트신경은 달리 말하면 종교개혁의 근본정신인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Sola Gratia), 오직 믿음으로만(Sola Fide), 오직 성경으로만(Sola Scriptur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Sola Deo Gloria) 재확인한 셈이며, 이것은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기초가 되었다.²³⁾ 또 이것은 요한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 교리적인 완성을 의미하는 회의이기도 하였다.

(C) 돌트총회의 지도자 요한네스 보겔만(Johannes Bogerman, 1576—1637)

돌트총회는 요한네스 보겔만이라는 한 인물과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는 자기의 일신상의 일을 모두 버리고 오직 개혁주의신학을 옹호하기 위해서 돌트총회의 의장으로서 놀라운 역할을 담당했다. 그의 초인적인 활동과 정열적인 헌신은 없었던들 돌트총회에서 개혁주의의 승리는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교회사학자인 한슨(M. G. Hansen)은 보겔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22) 화란교회 신앙고백서라고도 한다. 이 신앙고백이 채택될 때는 아직도 화란과 벨지움이 나누어지기 전이었으므로 화란교회 신앙고백이었다. 그후 나라가 나누어지므로 이를 벨직신경으로 불리었다.

23) 돌트신경의 전문은 李章植編譯, 基督教信條史 제II집(진콜더야사, 1983), pp. 11f. 에 수록되어 있음.

말하고 있다. 즉 “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광복할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좋은 풍채를 가졌는데 키는 컸고 콧꽃해서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이었다. 이마가 넓고, 눈은 빛나고 날카로웠다. 머리색갈과 같은 턱수염이 어깨까지 치렁치렁할 정도였다. 그는 표현이 풍부한데 다 흥분했을 때는 그의 제스처나 소리도 컸다”고 썼다.²⁴⁾

신학자요 목사인 요한네스 보겔만은 1576년 동 프리스랜드 아플베르트(Uplewert)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다. 그의 부친으로부터 신학과 신앙의 감화를 받은 보겔만은 부친의 권유로 받고 소명을 느껴 1591년 5월 23일 프라너커 아카데미에 입학해서 라틴어를 배우는 한편 드루시우스(Drusius)의 지도 아래 히브리연구에 열렬한 학생이 된다. 이것이 후일 그가 성경번역학자가 되게 했던 이유였다.²⁵⁾

그후, 그는 칼빈이 세웠던 제네바 대학으로 가서 공부하게 된다. 당시에 존 나스와 더불어 이미 나이가 많은 테오도르 베자(Theodore Beza)로부터 개혁과 신학을 전수받게 된다. 당시에는 종교개혁의 뜻을 가진 청년들이 제네바로 유학하게 됐는데 요한네스 보겔만은 나스와 함께 첫번째 온 학생들이며, 이 두 학생들은 결국 화란파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셈이다. 보겔만은 그후로도 하이델베르, 추리히, 토잔,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를 돌면서 학문과 전문을 넓혔다.²⁶⁾ 그후 1599년 여름, 화란으로 돌아와서 목사 후보생이 되고 이어서 스네이크라는 지방의 개척파교회의 청빙을 받아 1599년 9월 23일 약관 23세로 목사로 장립받는다.

그는 열심이 많고 다재다능했으므로 여러 교회를 함께 봉사하기도 했다.²⁷⁾ 그리고 1603년에 엔크하이즌으로 옮겨서 목사로서 봉직하게 된다.²⁸⁾ 그후 그는 노회와 총회의 총대가 된다. 그러던 중 1612년 그

24) Maurice G. Hansen, *The Reformed Church the Netherlands* (1884), p. 142.

25) 칼빈의 수제자인 베자도 역시 신약연구의 대가이다. 그는 칼빈제자로서 칼빈의 일대기를 썼을 뿐 아니라 신약성경을 헬라어와 라틴어로 대조번역해서 이른바 베자텍스트를 만들었다.

26) P. Y. de Jong, *op. cit.*, p. 39. “Leading Figures at the Synod of Dort” by Simon Kistemaker.

27) *Ibid.*

28) *Christelijk Encyclopedie onder Redactie Van Prof. Dr. F.W. Gro-*

의 모교인 프라너커 아카데미(Franeker Academy)의 신학교수로 임명받았으나 처음에는 목회 때문에 거절하고 그후에는 1618년부터 있는 총회 때문에 교수직을 포기하게 된다. 사실 그는 어느 의미로 칼빈주의적인 교리를 확정지은 돌트총회를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리만큼 그의 생애의 가장 큰 목적을 남긴 것이다. 물론 오랜 후인 1633년에 다시 교수로 지명된다. 그러나 그때는 또 성경번역사업에 주력하고 있을 때인지라 3년 후에 교수하는 것으로 하고 취임 승락을 한다. 그러나 그가 교수가 된 후인 9개월만인 1637년 9월 11일에 서거했다.

요한네스 보겔만은 성공적인 목회자일 뿐 아니라 성경번역사업과 성경신학자로서의 교수였다. 그러나 그보다는 교회의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서 종교개혁의 핵심적 교리인 진리를 바로 불빛기 위해서 6개월간의 어려운 총회를 잘 이끌고 지도해서 칼빈주의적인 교리를 정립한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칼빈주의자의 인물계보를 엮은 사진첩에는 요한네스 보겔만을 칼빈 다음 자리에 들 정도였다.³⁰⁾

그러면 보겔만의 돌트총회에 대한 공헌과 활동상황을 좀더 생각해 보기로 하자. 1618년 보겔만 목사는 프리스란트³¹⁾ 지방대회의 총대로

sheide, I (J. H. Kok, N. V., Kampen, 1956), p. 687.

보겔만에 대한 연구자료로서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다. H. H. Kuyper, *De Post-Acta*; H. Kaajan, *De Post-Acta*, 1914; H. Kaajan, *De Grootte Synode Van Dordrecht*; J. G. Feenstra, *De Dordtse Leersegelen* (Kampen; Kok, 1950). *Toelichting op de Scheltsen Kerkgeschiedenis*, Tweede deel (Van De Reformatie in Nederland tot 1816) (1935); A. A. Van Schelven, *Uit Den Strijd der Geesten* (1944). L. H. Wagenaar, *Van Strijd en Overwinning* (Utrecht, 1909). F. S. Knipscheer, *De Invoering en de Waardeering der Gereformeerde belijdenisschriften in Nederland Voor 1618* (Leiden, 1907) 등이다.

29) *Ibid.* 화란 이외의 나라에서는 요한네스 보겔만이 돌트총회의 의장으로 서 성공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로 알기보다는 성경번역학자로 더욱 알려져 있다. P. Y. de Jong, p. 99. "The Synod and Bible Translation, by Marten H. Woudstra.

30) 이 자료는 1920년 화란의 Anti-Revolutionaire Partij에 발행한 화란칼빈주의운동의 제보에서 발견된다.

31) 프리스란트는 화란북쪽지방으로 칼빈주의자들이 가장 많았고 교세도 가

참석해서 돌트총회의 총회장으로 피선된다. 당시 제 1 부회장은 야곱 로렌드(Jacof Rolands), 제 2 부회장은 헬만 파우켈리우스(Faukelius), 서기는 담만누스(S. Dammanus), 부서기는 홀미우스(F. Hommius)가 선출되었다. 돌트총회의 의장으로 당선된 보겔만의 활동상황은 초인적이며 극적이었다. 돌트총회는 6개월 동안 154번의 회의를 가졌다. 결국 주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회의를 한 셈이다. 보겔만은 초인적인 인내와 노력으로 각국에서 모여든 지도자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 대한 깊은 확신으로 굳굳하고 강력하게 이끌어 갔다. 보겔만은 개혁교회의 진리에 도전하는 항의자(Remonstrants)들의 이론을 쫓는 데 명쾌한 논리를 전개하였다.³²⁾ 보겔만이 항의자들의 교리를 쫓고 개혁교회의 정통교리를 바로 결정하는 순간 마치 천둥소리처럼 큰소리로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이제 우리는 인내와 친절과 동정과 사랑과 관용으로 의제를 취급했소, 여러분이 왔던 길로 가시오, 여러분은 거짓으로 시작했다가 거짓으로 끝냈었소, 총회로서는 이 논제를 더 취급할 수 없소. 떠나시오, 가시오.”

하고 불벼락이 떨어졌을 때 항의자들은 벌떡 일어나 말없이 떠났다. 우리가 돌트총회를 생각할 때 보겔만 의장을 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가 총회를 지켰던 사람인 동시에 철저한 칼빈주의사상에 서 있는 교정가요 학자였기 때문이다. 또 그의 활동으로 돌트신경이 채택되고 칼빈주의의 기본골격인 5개조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보겔만은 평화주의자였다.

그는 인내와 관용할 줄 알며, 감정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정리하는데 큰 인물을 세워서 교회의 순결을 지켜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지도자가 없었으면 애써 이룩한 종교개혁의 불길은 꺼질번 하였다.³³⁾

장 강했다.

32) P. Y. de Jong, *op. cit.*, p. 40.

33) Hansen, *op. cit.*, p. 158.

3. 설교와 돌트총회

신학과 신앙이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듯이 교리와 설교도 분리할 수 없다. 즉 교리가 잘못될 때는 언제나 설교에서부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돌트총회가 열리게 된 배경도 강단에서 설교가 개혁교회의 교리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돌트총회는 신자들의 실제생활과는 무관한 신학적인 논쟁거리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돌트총회의 결정은 복음의 핵심이요, 구원의 기초적 본질을 다루는 중대한 문제이다.³⁴⁾ 설교자가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의 설교의 방향은 달라지게 된다.

가령 구원이 하나님의 단독사역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의 협동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견해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은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구원의 방도를 전진하게 설교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교회 안에서의 깊은 관심이 돌트총회를 모이게 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다.³⁵⁾ 가령 설교에서 예정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의 설교와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설교는 하늘과 땅같은 차이가 있다. 교리에 분명치 못한 사람은 설교자의 경험을 증거하므로 청중들의 동의를 얻고자 했던 것이다. 예정교리는 개혁주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설교가 하나님의 원영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임을 확신한다면 그 설교의 주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³⁶⁾

34) P. Y. de Jong, *op. cit.*, p. 115. "Preaching and the Synod of Dort," by P. Y. de Jong.

35) *Ibid.*, p. 116.

36) Imre L, "The Significance and use of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in Practical Theology" *Evangelical Quarterly*, 6 (1934), pp. 275f. 아무래는 예정론이 개혁파설교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Firstly, we are doubtless obliged to speak about God's election because we have no right to omit anything of the message of God is telling through us to His church.Secondreason which makes it necessary to preach Predestination is contained in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The third reason is mentioned by Luther in his criticism of Erasmus,Finally, it is necessary to preach the Predestination.

당시의 개혁교회는 벨직신경과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주축으로 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목사의 의무였지만 문제의 발단은 알미니우스의 설교에서부터 시작된다. 알미니우스는 로마서 1장을 해석하면서 개혁주의는 실제로 선한 행위의 필요성을 부인한다고 비판하고 죽음은 죄의 결과라기보다 인간의 유한성에서 기인한다고 전제한 후 로마서 7장 14절 이하를 가르치면서 중생 못한 자연인도 자신의 영적 곤경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설교를 했다.³⁷⁾

이런 설교들은 젊은이들에게 빠른 속도로 파급되어갔고 정치적 권력의 도움까지 받게 되어 개혁교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즉, 정부는 '알미니우스를 보호하고 목사로 우대하는가 하면' 봉급을 지불하고 집회 때마다 그에게 설교를 시키고 칼빈주의자들을 도시에서 추방하기에 이른다. 그런 와중에 점점 신자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설교와 칼빈주의자들의 설교가 무엇이 다른지 깨닫기 시작한다. 그래서 돌트총회는 당시 교회 안팎으로 있었던 설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³⁸⁾

물론, 돌트신경 자체는 설교에 대한 언급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지만 총회가 설교에 대한 원칙은 세웠다. 돌트신경에 설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은 이렇다. 즉, 기독교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봉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식되어야 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선포되어야 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신조도 기독교 진리의 모든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신조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모든 것을 역사적 상황에 있는 교회를 남김없이 다 적용하도록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설교문제를 굳이 신경에 삽입하지는 아니했다. 하지만 포괄적으로 돌트신경 속에 들어 있을 뿐 아니라

because preaching is the means by which God lets the elect know of His grace. God is speaking in preaching to His own ones and this is the way He is calling them", pp. 276-277.

37) P. Y. de Jong, *op. cit.*, p. 117f.

38) 혹자는 돌트총회가 단순히 예정교리만 취급했다고 생각하나 이것은 돌트총회의 한 면만 본 것이다. 돌트총회의 안건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교회 자체 내의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고, 둘째는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사이에 일어난 교리적인 문제를 취급하고, 셋째는 설교에 대한 문제를 취급했다. *Ibid.*, p. 120.

돌트총회에서는 칼빈주의자들의 설교는 어떠해야 함을 강조했다.³⁹⁾ 돌트총회는 건전한 성경적 설교가 무엇임을 다루고 비성경적인 알미니안의 복음선포를 비난했다. 그 당시 개혁주의 강단에서는 알미니안주의를 불법으로 간주했다.

그러면 돌트총회에서 설교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을 살펴보자.

첫째로, 설교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전제한다. 즉, 인간의 철저한 부패가 전제되지 않으면 설교의 의미는 없다는 것이다. 설교는 바로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인으로서 구원을 위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게 된다.⁴⁰⁾

둘째로, 돌트신경은 설교의 성격을 “은혜의 수단으로서 설교”를 가르친다.⁴¹⁾ 설교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이다. 또 설교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에 대면시키는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유효한 행위이다. 설교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다.⁴²⁾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보았다. 개혁과 교리는 성경과 성령이 더불어(together Word and Spirit) 일하신다.⁴³⁾ 그러므로 설교에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역설하고 있다. 설교자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심에 있어서 도구를 쓰임받는 것이다.

셋째로, 돌트신경에 있어서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화목”(reconciliation by and to God)임을 말하고 있다.⁴⁴⁾ 성경은 하나님이 원저자이므로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설교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39) *Ibid.*

40) 이런 논리는 돌트신경 1장 1조, 2조, 3조 등에 잘 표현되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음으로 저주 아래 있고, 영원한 죽을에 처해 있기 때문에……”(1장 1조).

41) P. Y. de Jong, *op. cit.*, p. 127.

42) 설교학(說敎學: Homiletics)이란 말은 ὁμιλία에서 나왔는데 이 말의 뜻은 “만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43) *Ibid.*, p. 127.

44) *Ibid.*, p. 128.

하나님과 세계를 화목시키는 일이다. 설교는 인간의 자기판찰과 판단에 따라서 여기저기 마음대로 하는 일(hit and miss affair)이 아니다.⁴⁵⁾ 모든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이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 중심적 설교는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라고 해도 무방하다. 돌트신경의 설교관들을 살펴보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입장은 판이하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통해서 신앙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 자신임을 가르친다.

네째로, 돌트신경에서 설교의 접근은 “거짓없는 부르심으로서의 설교”로 본다.⁴⁶⁾ 돌트신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 복음을 가지고 설교함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약속과 명령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촉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의 약속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함께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⁷⁾

다섯째로, 돌트신경에서 보는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본다.⁴⁸⁾ 설교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신학적인 입장이 문제가 된다.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서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춘다. 그래서 이런 설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 그리고 성경 전부(Scriptura Tota)를 증거해야 하는 것이다.

4. 돌트총회와 목회문제

칼빈대학교수 팔머는 돌트총회와 목회문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말한 적이 있다. 즉, 개혁주의 사상을 바로 알지 못하는 목회

45) *Ibid.*, p. 129. 특히 돌트신경 II장 3절을 참고할 것.

46) *Ibid.*, p. 130.

47) *Ibid.*, pp. 130-132. 돌트신경 III장, IV장 8절, II장 8절, IV장 17절 등을 참고할 것.

48) *Ibid.*, pp. 132-133.

자들 중에는 칼빈주의 5대 교리(Five Points of Calvinism)는 잔혹하고 냉엄하며 진을마져 느끼게 한다고 본다. 또 칼빈주의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횡적(專橫的)이고 유기(遺棄: Reprobation)의 작정은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믿는 목사들은 칼빈주의를 하나의 숙명론(宿命論)처럼 생각하는가 하면 칼빈주의자들은 도덕적으로 게으르고 잘못된 보장을 주고, 선교를 도의시하며, 인간의 책임을 시킨다고 하면서, 실제의 목회에서 칼빈주의적인 가르침을 외면하거나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자칭 칼빈주의자라고 말하는 목사들까지도 실제 목회의 현장에서는 알미니안주의자처럼 목회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⁹⁾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팔머 교수의 지적은 단순히 미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한국장로교회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진다. 즉, 이론적으로는 칼빈주의자이나 실제적으로는 알미니안주의자(Calvinist theoretically are Arminians Practically)로 사는 목사들이 많다는 지적이다.⁵⁰⁾ 칼빈주의적 신앙을 가진 목사들은 설교 뿐만 아니고 목회 상담에 있어서도 “오직 성경으로”와 “성경 전부”의 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사실 돌트신경은 일반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목회에 확신과 뜨거움을 주는 교리들로 가득차 있다.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하나님의 항거할 수 없는 은혜(God's irresistible grace)를 믿는 것은 소망이 없는 자에게 참소망을 주는 것이다.⁵¹⁾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당한 구원의 확증을 선포할 때만 확신에 넘치는 목회가 가능하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항거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것은 목회자 자신에게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목회가 소망의 목회가 되도록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동적인 구속행위만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돌트의 성경적 가르침은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낮춘

49) *Ibid.*, p. 137f. "Significance of the Canons for Pastoral Work" by Edwin H. Palmer.

50) *Ibid.*

51) *Ibid.*, p. 139.

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목회자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든다.⁵²⁾

셋째로, 돌트신경의 정신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만 감사하도록 한다. 칼빈주의자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린다. 무조건적 선택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생활의 열매로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⁵³⁾ 이러한 칼빈주의적인 사상이 목회 전반에 나타날 때 칼빈주의 교리는 냉랭한 이론이 아니고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다.

네째로, 돌트신경은 구원의 확신을 준다.

목회자는 언제든지 구원문제에 있어서 확신이 없는 성도들을 만난다. 그들의 신앙은 아침저녁으로 기분에 따라 변하는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성경적이지 못한 이유도 있으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단독사역인 것과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을 못 믿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크게 차이가 있다. 칼빈주의의 교리는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섭리가 바로 그의 주권적인 사역을 믿고 가르치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의 그것과는 다르다.

다섯째로, 돌트신경은 역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한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환란과 역경을 만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확신을 안겨준다. 그러므로 돌트신경의 칼빈주의 교리들은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간에 위로와 희망이 된다. 그러므로 돌트신경의 원리들은 목회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도록 한다.⁵⁴⁾

5. 돌트신경 속에 나타난 선교사상

혹자들은 칼빈주의가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기

52) *Ibid.*, p. 140.

53) *Ibid.*, p. 142.

54) *Ibid.*

때문에, 칼빈주의는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돌트 신조는 선교의 사상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잘 가르치고 있다. 칼빈신학교 교수인 후크마(Anthony Hoekma) 박사는 말하기를 “돌트규정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뿐 아니라 그의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다.⁵⁵⁾

선교는 돌트규정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통한 선교의 더 뜨거운 열정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의 사역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진정한 선교사가 될 수 없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돌트신경이 한낱 옛날의 기록문서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으나, 돌트총회에서 가결한 칼빈주의적 선교이해는 오늘날 다시 되새김질해야 할 것이다. 혹자들은 생각하기를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구원론에 약한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구원론은 루터나 칼빈에게 있어서 다같이 중요한 것이다.⁵⁶⁾ 우리는 믿기를 죄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전 생애와 그가 처한 모든 관계가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옮겨져야 하는 것이다.⁵⁷⁾ 그러므로 영혼구원관념과 하나님의 영광관념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룬다. 이와같이 칼빈주의의 원리는 성경의 통일성의 재발견에 있다. 칼빈주의자들은 그들의 신학사상과 선교의 임무가 똑같이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믿고 있다.⁵⁸⁾ 그러면 구체적으로 돌트신경에 나타난 선교의 사상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물론 이 표현들은 매우 간접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선교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돌트신경의 첫째 주제는 신적인 예정이다. 이 진리의 요점은 하나

55) Anthony A. Hoekema, "The Missionary Focus of the Canons of Dort"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7, No. 2 November (1972), p. 209f.

56) G. C. Berkowwer, *Geloof en Rechtvaardiging* (Kampen, Kok, 1960), pp. 55-56.

57) J. H. Bavink, *The Impact of Christianity on The Non-Christian World* (Eerdman, 1960), pp. 18-19.

58) 풀저, 칼빈주의 사상과 삶 (한국성서협회, 1979), p. 170.

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초시간적 섭리에 의해서 되어졌기에, 인간의 무슨 의(義)나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사상이다. 가령 I장 2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선교사업에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⁵⁹⁾

또 I장 3절은 선교의 불가불성을 가르치는데 로마서 10장을 인용하고 있다. 이 문항의 요점은 하나님 자신이 복음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었고, 그것은 또 하나님의 긍휼에 바탕을 둔 것이다. I장 4절은 역시 선교의 결정적 중요성을 암시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 나타나 있으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을 확실히 언급하고 있다. I장 7절에서의 요점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불변적 목적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I장 8절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또 구원의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⁶⁰⁾

돌트신경의 제II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속을 취급하고 있다. 특히 II장 3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단번에 된 것이며 가장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었고,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밝힌다. 이것이 바로 선교해야 할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II장 5절은 선교의 대헌장(Magna Charta)이라고 할만하다.⁶¹⁾ 복음의 약속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약속은 전파되어야 하며 무차별하게 선언되어야 하며, 구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하며, 복음을 증거하되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증거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세제와 네제 교리를 살펴보자. 3절에는 여기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이 취급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 선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4절에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의 빛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어리석은 사람임을 지적한다. 6절에는 기독교의 유일성을 논증하면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

59) Anthony Hoekema, *op. cit.*, p. 212. 이때 요일 4:9과 요 3:16을 근거로 제시한다.

60) *Ibid.*, p. 213.

61) *Ibid.*, p. 214.

뿐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사실 이 내용은 선교신학의 기본적인 요점 (basic importance of a theology of mission)이다.⁶²⁾

제V장은 성도의 견인을 취급하고 있는데 10절에는 구원의 확신은 선한 양심과 선한 행위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원확신 또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믿는 것은 선교의 확신을 갖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트신경이 성경의 선교적 관심에 집중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돌트신경의 요점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주적 하나님의 구속이다. 우리는 돌트신경에서 강한 선교신학을 발견하며 동시에 선교적 책임도 발견하게 된다.⁶³⁾

結 論

우리는 위에서 돌트총회의 의의와 칼빈주의운동을 살펴 보았다. 우리 장로교회는 이른바 전통적인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계승한 돌트총회의 후신으로 얼마나 거기 충실한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칼빈주의는 냉정한 교리만 외우는 것이 아니고 명실공히 목회의 현장, 설교의 현장, 선교의 현장,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돌트총회에서 표현된 칼빈주의 사상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62) *Ibid.*, p. 216.

63) *Ibid.*, p. 219. "The main focus of the Canons, we have seen, is the *Missio Dei*; God's redemption of the cosmos through Christ. 이때 *Missio Dei*의 의미는 현대선교신학에서 쓰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속운동을 전개하신다는 신본주의적인 선교를 지칭한다.

中世 暗黒時代의 底流가 된 새싹들

孫 斗 煥

<역사신학>

1. 머 리 말

중세기의 代名詞는 암흑시대라고 指稱되고 있다. 이 암흑시대에 雙童兒와 같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인 큰 산맥이 나타났었다. 이 雙童兒가 갑자기 突出된 산맥이라고 생각한다면 歷史意識이 없는 우매한 사람이라고 책망받을 것이다. 큰 江水가 흐르려면 그 水源이 되는 작은 산곡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역사적인 큰 산맥이 되는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이란 사건 배후에는 水源이 되는 험산준령 같은 "중세기의 암흑"이 있었다.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이라는 雙童兒의 큰 물줄기를 도도하게 흐르게 했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주목해 보자.

예컨대 불행했던 제1次세계대전 후 근대 문화의 꽃이 피는 옥야천리(沃野千理) 유럽대륙에서는 자랑스러운 문화적인 결실들도 많았다. 그러나 문화적인 "에너지"를 잘못 활용하여 큰 불행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포와 불안한 세계로 전락시켰다. 이 제2의 종교개혁이 요청되는 時點이 도래된 오늘, 다시 한번 역사적인 자성이 촉구되고 있다. 오늘의 현실을 注視하고 역사적인 눈을 밝혀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의 雙童兒格인 兩大江을 흐르게 한 소위 "중세암흑시대"라는 험산준령이 된 각 분야의 골짜기를 광맥(鑛脈)이나 水脈을 찾아보는 광부처럼 진지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탐구(探究)해 보고자 한다.